

## 眩暈의 病因病機에 關한 小考

金鎮秀 · 金聖勳\*

### I. 緒 論

眩暈이란 하나의 自覺症狀으로 “眩”은 目眩, 즉 眼花 或 眼前發黑, 視物模糊를 뜻하고, “暈”은 頭暈, 즉 자신 或 外界事物이 도는 것 같아 站立할 수 없는 것으로 眩과 暈이 함께 나타나므로 “眩暈”이라 같이 稱한다<sup>14)</sup>.

臨床症狀은 눈이 보이지 않고, 몸이 흔들리며, 종종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主症으로 하며 가벼운 경우 눈을 감으면 멈추지만, 重하면 舟車에 탄 것 같이 惡心, 嘔吐, 汗出 등을 隨伴하며 甚하면 失神까지 이르는 症候로<sup>14)</sup> 顛眩, 目眩, 頭眩<sup>9)</sup>, 眩運<sup>8)</sup>, 眩冒<sup>14)</sup>, 暝眩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어 왔다.

예를 들면, 頭暈으로 因하여 眼昏이 되는 것을 顛眩이라 하였고, 眼昏으로 因하여 頭暈이 되는 것을 目眩이라 하였다. 頭部가 昏重하고 目이 흐려지는 것을 眩冒라 하였으며, 暝眩이란 《尙書·說命篇上》에 “諸藥弗暝眩이면 厥疾은 弗瘳한다”는 內容에서와 같이 往往 藥物反應과 관련되어 쓰여지기도 하였다.

원래 眩暈이란 用語는 《三因方》에 가장 처음 言及되어 있으며, 《素問》에서는 掉眩, 頭暈, 循蒙이라고 하였고, 《靈樞》에서는 眩冒, 目眩, 胸仆라고 稱하였으며, 《金匱要略》에서는 冒眩, 顛眩이라 하였고, 《諸病源候論》에서는 風眩, 《丹溪心法》에서는 眩暈과 함께 頭暈이란 표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眩暈의 病因 病理에 關하여 《黃帝內經·至眞要大論》<sup>11)</sup>에는 “諸風掉眩皆屬肝木”이라 하여 內風이 眩暈의 主要 病因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劉<sup>4)</sup>는 《黃帝內經》의 風에 火를 추가하여 說明하였고, 朱

<sup>6)</sup>는 “無痰不能作眩”이라 하여 痰을 그 病因으로 主張하였으며, 張<sup>12)</sup>은 “無虛不能作眩”이라 하면서 虛가 眩暈病因의 十中八九를 占한다고 記述하였다.

西洋醫學에서 眩暈은 回轉感을 主로 하는 眞性 眩暈(vertigo)과 非回轉性인 비틀거림, 無力症, 아절함과 머리가 텅 빈 느낌 및 눈이 침침하고 非現實感, 失神이나 眩氣性 發作이 있는 僞性眩暈으로 分別하며<sup>18)</sup>, 病變 部位의 聽器와의 關聯性에 따라 耳性 眩暈과 非耳性 眩暈으로 나누어, 耳性 眩暈에는 各種 外耳 및 中耳疾患, 迷路炎, 聽器外傷, 迷路梅毒, 藥物中毒에 의한 眩暈, Meniere氏病에 의한 眩暈 등이 包含되고 非耳性眩暈에는 視性眩暈, 鼻性眩暈, 心因性眩暈, 腦性眩暈, 其他 婦人科的, 內科的, 혹은 外科的 疾患에 수반되는 眩暈이 該當된다 볼 수 있다.<sup>17)</sup>

이와 같이 眩暈에 대한 醫家들의 主張은 다양하지만 臨床에서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점이 있고 現代醫學의 어지러움증과는 상관성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眩暈에 대한 韓方臨床을 보다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먼저 重要 韓醫書에 나타난 眩暈의 病因病機를 정리하고, 現代醫學에서 나타난 어지러움증의 病因病理를 比較考察하여 有意한 結果를 要約하였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 II 本論

### 1. 東醫의 眩暈病因病理說

醫家及文獻	眩暈症狀及種類	眩暈 病因病理
黃帝內經 <sup>1)</sup>	狗蒙招尤目冥耳聾 或 胸仆(眩仆) --->眩冒	①下實上虛過在足少陽厥陰甚則入肝 ②上氣不足 腦爲之不滿 ③髓海不足 則 腦轉耳鳴 眩冒 目無所見 ——精脫者耳聾 氣脫者目不明 ④諸風掉眩皆屬肝木 ⑤上虛則眩
張 機 <sup>2)</sup>	頭眩 眩冒 目眩	①傷寒若吐若下後一 起則頭眩(表虛陽不足) ②太陽病 發汗 汗出不解 頭眩(亡陽) ③太陽與少陽併病 眩冒 ④陽明病 頭眩(穀氣與熱氣相搏) ⑤少陽之爲病 目眩(熱熏眼發黑也) ⑥少陰病 下利止而頭眩 ⑦治眩 痰飲爲先
巢 元 方 <sup>3)</sup>	風頭眩候	由血氣虛 風邪入腦而引目系故也
劉完素 <sup>4)</sup>	眩暈者其動不正 而左右行曲	原病式云諸風掉眩皆屬肝木 掉搖也眩昏亂旋運也 風主動故也 由風木旺必是金衰不能制木而木復生火 風火皆屬陽 多爲兼化 陽主乎動 兩動相搏 則爲之旋轉 故火木動也 燄得風則自然旋轉 ——眩暈而嘔吐者 風熱甚故也
張 從 正 <sup>5)</sup>	眩 暈	胸中有宿痰
朱 震 亨 <sup>6)</sup>	眩者言其黑運轉旋 其狀目閉眼暗身轉耳 聾 如立舟船之上 起則欲倒(頭眩)	①風寒暑濕 四氣乘虛 ②痰挾氣虛併火 ③痰因火動也 蓋無痰不能作眩 雖因風者 亦必有痰
朱 橐 <sup>7)</sup>	風頭眩 眩暈 頭與目俱運也 眊爲眼花 眩爲眼黑 運爲轉運之運	六淫外感七情內傷皆所由之 ①風寒暑濕 與 脉證 ②七情所惑 ③淫慾過度 腎家不能納氣歸元——氣虛 ④吐衄漏崩 新產亡血 生於血虛 肝家不能收攝 金刀血衄 ⑤妄施汗下——少陰病 下利不止

<p>張介賓<sup>12)</sup></p>	<p>眩暈</p>	<p>眩暈一證 虛者居其八九而兼火兼痰者不過十中一二耳                  ①勞倦過度 饑飽實時 嘔吐 泄瀉                  大汗 胸目驚心                  焦思悲哀通楚大叫大呼——傷其陽中之陽                  ②吐血衄血便血 癰膿大潰 金石被傷失血 男子縱欲氣隨精去 婦女崩淋產後去血——傷其陰中之陽                  ③大醉後 傷其陰                  ④大怒——傷其氣                  ⑤年老精衰——營衛虛                  考按河間 丹溪之說 而無虛不能作眩 當以治虛爲主 而酌兼其標</p>
<p>徐春甫<sup>13)</sup></p>	<p>眩運</p>	<p>肥人氣虛有痰 瘦人血虛有火 傷寒汗吐下後 必是陽虛 故針經云 上虛則眩 此三者責其虛也                  風寒暑濕四氣乘虛而眩暈也                  七情鬱而生痰動火 七情致虛眩暈                  淫慾過渡腎家不能納氣歸元 氣虛眩暈                  吐血或崩漏 肝家不能收攝 血虛眩暈</p>
<p>李梴<sup>9)</sup></p>	<p>頭眩                  眩暈或云眩冒                  眩言其黑 暈言其轉                  冒言其昏一也                  眼花昏暗屋旋飛</p>	<p>① 虛者內外之邪乘虛入表而上攻 實者內外之邪鬱痰 上結而下虛                  肥白人——濕痰滯於上 火起於下                  瘦人 ——腎水虧少 相火上炎                  ② 內傷勞役 氣虛血虛                  ③ 化痰暈甚氣痛</p>
<p>龔廷賢<sup>10)</sup></p>	<p>眩者言其黑                  運旋轉其狀                  目閉眼暗身轉耳聾                  如立舟車之上起則欲倒</p>	<p>① 虛極乘寒得之                  ② 風寒暑濕氣鬱生涎下虛上實</p>
<p>許浚<sup>14)</sup></p>	<p>風, 熱, 痰, 虛, 濕, 氣暈                  頭暈循蒙者如以物蒙其首                  招搖不定目眩耳聾</p>	<p>虛者氣與血也 實者痰涎風火</p>
<p>中醫內科學<sup>14)</sup>                  (上海中醫學院)</p>	<p>眩是眼花 暈是頭暈 輕者閉目即止重者如坐舟車之中 可伴有惡心嘔吐汗出故又稱眩冒</p>	<p>風——內經, 風火——河間, 痰——丹溪, 虛——介賓                  ①肝陽上擾~肝陰暗耗, 肝火偏亢 風陽升動                  ②腎精不足~腎臟精以生髓 先天不足 或勞傷過度 不能生髓而上奉于腦 故腦髓不足                  ③久病不愈 耗損氣血 或脾胃虛弱~氣血不足                  ④恣食肥甘 傷于脾胃 聚濕生痰 痰濕交阻</p>

<p>東洋醫學叢書<sup>16)</sup></p>	<p>眩是眼花,暈是頭暈,輕者閉目即止,重者如坐車船,旋轉不定 不能站立 或伴有惡心 嘔吐 汗出 甚則昏倒等 症狀</p>	<p>虛者居多,如陰虛易肝風內動,血少腦失所養,精虧則髓海不足,均易導致眩暈. 其次由于痰濁壅遏,或化火上蒙,亦可形成眩暈</p> <p>①肝陽上亢~素體陽盛 肝陽上亢 發為眩暈 或因長期憂鬱惱怒 氣鬱化火 使肝陰暗耗 風陽升動 上擾清空 發為眩暈. 或腎陰素虧 肝失所養 以致肝陰不足 肝陽上亢 發為眩暈.</p> <p>②氣血虧虛~久病不愈 耗傷氣血 或失血之後 虛而不復 或脾胃虛弱 不能健運水穀以生化氣血 以致氣血兩虛 氣虛則清陽不展 血虛則腦失所養 皆能發生眩暈</p> <p>③腎精不足~腎為先天之本 藏精生髓 若先天不足 腎陰不充 或老年腎虧 或久病傷腎 或房勞過度 導致腎精虧耗 不能生髓 而腦為髓之海 髓海不足 上下俱虛 發生眩暈.</p> <p>④ 痰濕中阻~嗜酒肥甘 飢飽勞傷 傷于脾胃 健運失司 以致水穀不化精微 聚濕生痰 痰濕中阻 則清陽不升 濁陰不降 引起眩暈.</p>
<p>中醫臨床大全<sup>15)</sup></p>	<p>風眩 痰眩 火眩 虛眩 瘀眩</p>	<p>眩暈的病機虛實兩端 而以虛為本. 虛以氣血虧虛 精髓不足為主, 實以風, 痰, 火, 瘀為先. 腎水虧耗 不能涵木 則肝風上擾:</p> <p>飲食失節 中土虛損 水谷不化精微 變為痰飲: 情志不舒 氣鬱化火 每至肝陰暗耗 肝陽升動: 氣虛則鼓動武力: 血氣遲滯 以之瘀血停着. 可知風 痰 火 瘀屬實 担却是以肝腎不足 心脾虧損為基礎的.</p> <p>① 肝陽上亢, ② 水不涵木 ③ 血虛不榮, ④ 中氣不足 ⑤ 腎精虧損, ⑥ 痰飲中阻 ⑦ 氣滯血瘀</p>
<p>陣夢雷<sup>22)</sup></p>	<p>眩者,言其黑運轉旋,其狀目閉眼暗,身轉耳聾,如立舟船之上,起即欲倒.</p>	<p>頭眩, 痰挾氣虛併火, 治痰為主, 挾補氣藥及降火藥, 無痰即不作眩.</p> <p>風則有汗, 寒則掣痛, 暑則熱悶, 濕則重滯, 此四氣乘虛而眩暈也, 七情鬱而生痰動火, 隨氣上厥, 此七情致虛而眩運也.</p> <p>淫慾過度, 腎家不能納氣歸源, 使諸氣逆奪而上, 此氣虛眩運也, 吐衄崩漏, 肝家不能收攝榮氣, 使諸血失道妄行, 此血虛眩運也.</p>

2. 西醫의 眩暈病因病理說

1) 白萬基說<sup>17)</sup>

(1) 運動覺 및 位置覺의 異常有無에 따른 分類  
眞性眩暈

回轉性眩暈: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주위의 물  
건이 回轉하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

浮動性眩暈: 눈을 감으면 자기 몸이 공중에 떠  
다니는 것 같아서 고정된 것을 붙들지 않으면 건  
디지 못하는 증상

假性眩暈

명확한 運動覺이나 位置覺의 異狀을 호소하지  
않고 眼前暗黑感, 脫力感, 深部筋感覺의 異狀이라  
할 수 있는 觸覺性 眩暈등을 일괄해서 말한다.

(2) 病變部位의 聽器와의 關聯性 여부에 따른 分類

耳性眩暈

定義: 聽器, 특히 迷路 및 그 근접부의 病變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

이 전에는 迷路性 眩暈 또는 末梢性 眩暈이라고  
불러 왔으나 현재는 耳性眩暈으로 널리 부르며 각  
종의 外耳 및 中耳疾患, 迷路炎, 聽器外傷, 迷路梅毒,  
藥物中毒에 의한 眩暈 이외에 Meniere씨 병의 眩  
暈 등 대부분이 耳性眩暈에 포함된다. 耳性眩暈에  
는 眼球振盪, 平衡失調, 惡心, 嘔吐, 冷汗 등의 自

2) 李文鎬等說<sup>18)</sup>

律神經症狀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非耳性眩暈

定義: 聽器 혹은 그 中樞路에 직접 관계가 인정  
되지 않은 眩暈을 말하며 非前庭性 眩暈이라고도  
한다.

非耳性眩暈에는 視性眩暈, 鼻性眩暈, 心因性眩  
暈, 腦性眩暈 기타 婦人科的, 內科的 혹은 外科的  
疾患에 수반되는 眩暈이 많이 포함된다.

(3) 眩暈의 出現樣式에 따른 分類

發作性 眩暈: Meniere氏病 혹은 偏側性內耳障  
碍 때 나타난다.

持續性 眩暈: 兩側迷路機能閉絶, 中樞神經系疾患  
때 나타난다.

頭位 및 體位變換性 眩暈: 耳石器의 病變, 頭蓋  
內 循環障碍 때 나타나기 쉽다.

分 類	症 狀
眩氣症 (Dizziness)	빙빙 도는 느낌인 참된 眩暈(vertigo)뿐만 아니라 非回轉性 비틀거림, 無力症, 아찔 함과 머리가 텅 빈 느낌 및 눈이 침침하고 非現實感, 失神과 痼疾性小發作(眩氣發 作)등을 나타낸다. 또한 眩暈은 자기스스로가 맴도는 느낌인 主觀의眩暈과 周圍事物이 돈다고 착각 하는 客觀的眩暈으로 區分되기도 하나 확실치 않다.
眞性眩暈 (Vertigo)	患者가 周圍의 事物이 한 方向으로 도는 回轉感 또는 움직인다고 말하거나 자기 머리나 몸이 빙빙 도는 것과 動搖感이나 方向 轉換感, 磁石에 끌리는 것처럼 한쪽 바닥에 끌려 당겨지는 느낌 및 또한 아주 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眩暈에서 發汗, 蒼白, 耳鳴, 嘔吐등을 동반하며 眼震이 있어 視野에 비치는 사물들이 律動的 으로 한 方向으로 움직이는 듯하고 原則的으로 步行障碍를 수반한다. 眩暈性步行 失調症(Vertiginous ataxia)은 항상 머리의 眩氣症으로만 나타나고 四肢나 軀幹에 는 障碍가 없다. Barany씨의 良性體位性眩暈은 드러눕거나 일어나 앉은 후 2-3초 동안 眩暈이 있다.

<p>偽性眩暈 (Pseudovertigo)</p>	<p>① 흔들거리는 느낌, 머리가 빈 듯한 느낌, 헤엄치는 느낌, 더 드물게는 大氣中을 걷는다가 머릿속이 어질어질하든가 불안전하고 넘어지려하거나 정신을 잃으려는 느낌을 나타낸다. 原因: 神經症이나 不安發作을 일으키는 精神疾患 및 過呼吸等에 의하여 공포, 두려움, 두근거림, 숨막힘, 떨림 및 發汗等を 수반한다. ② 甚한 貧血狀態에서 體位變動이나 運動으로 머리가 텅빈 듯하게 느끼고 無力症과 노곤함이 더해지는데 그 원인은 低酸素症이다. ③ 肺氣腫患者가 身體運動을 하면 無力症과 특별한 腦性 느낌을 갖게되고 기침이 어질증과 失神까지도 일으키는데 이는 心臟에의 靜脈還流가 障礙되어 온다. ④ 高血壓性 眩氣症은 不安 및 腦血流의 不安定한 調節에 表한다. ⑤ 體位性 眩氣症은 腦血流의 恒常性을 보장하는 血管運動性 反射機轉의 不安定性 때문이며 오래 누워 있어 약한 病人  사람이나 老人에 많다. 즉 臥位나 坐位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곧 흔들거림의 眩氣症, 視力障礙, 눈앞의 暗點 등이 2-3초 지속되며 때로는 失神發作을 일으킨다.</p>
<p>眩暈의 神經學的 및 耳科學的原因 및 種類</p>	<p>① 癇發作前兆-Sylvian溝 근처의 側頭葉의 後側方病變--- 側頭에서 멀어지는 느낌 및 반대측으로 주위사물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2-3초 지속되다가 癲變發作으로 넘어간다. ② 眼球運動障礙도 眩氣症과 흡사한 空間指南力障礙의 原因이 되는데 이는 麻痺筋이 作用하는 方向으로 바라볼 때 제일 심한데 이는 視野가 다른 두 방향으로 투영되어 서로 一致하지 않는 영상의  지각으로 마치 정상인인 二焦點眼鏡을 끼고 높은 곳에서 밑을 굽어볼 때의 眩氣症과 같다. ③ 頸髓性 眩暈은 上部經 髓根과 그 支配領域의 障礙로 發生된다.(Dejong설) ④ 迷路性(耳性)病變--發作性眩暈의 흔한 原因 **Meniere씨 症候群 發病이 급격하고 眩暈은 回轉性이고 數分내지 數時間 계속되며 耳鳴을 同伴하는聽覺漸增을 동반하는高音귀먹음 眼震, 嘔逆, 嘔吐 및 비틀거림이 있다 ⑤ 前庭神經炎은 耳鳴 및 귀먹음 없이 수일간 계속되는 甚한 眩暈을 나타내나 Barany氏 良性體位性眩暈 및 惡性後頭蓋窩腫瘍의 體位性眩暈에서 2-3초 동안 지속된다. ⑥ 聽神經性眩暈은 聽神經腫에 나타나며 보통 輕하고 間歇的으로 數週나 數個月 지속된다. 聽神經腫의 初期에는 드물고 聽覺漸增을 동반  않는 高音의 귀먹음이 있는 數年後에 慢性眩暈과 Calori反應障礙가 보이며 그후 第5,8,10 腦神經麻痺와 四肢의 同側性 失調 頭痛 그리고 小腦橋脚腫瘍때 보이는 다른 症候 등이 나타난다. ⑦ 腦幹性眩暈은 前庭神經核과 그 連絡路를 침범한다. 前庭神經核 蝸牛神經은 延髓와 橋에 들어가면 곧 갈라지므로 聽覺機能은 障礙가 없다. 이런 中樞性病變에 依한 眼震은 粗大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쪽을 옆으로 볼 때 甚해진다. 또한 非回轉性 垂直性 眼震도 있을 수 있다.</p>

眩暈의 病理 機轉	<p>① 두 눈의 網膜으로부터의 刺戟: 이 刺戟이 眼筋運動機轉과  협조하여 자기 몸과 周圍事物의 위치와 운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p> <p>② 內耳의 迷路로부터의 刺戟: 이것은 매우 特殊화된 空間의 固有知覺受容器로서 그 一次的인 機能은 運動方向의 變化(加速 또는 減速) 및 몸의 자세의 變化를 포착하는 것이다. 그 중 三半規管은 운동과 回轉運動量에 反應하며 卵形囊과 球形囊의 感覺機인 平衡石은 주로 重力과의 관계에서 몸의 위치를 포착하는 作用을 하고 있다.</p> <p>③ 關節과 筋肉의 固有知覺受容器로부터의 刺戟: 이것은 모든 反射, 姿勢 및 隨意運動에 必須의이다. 목에서 오는 이들 刺戟은 머리의 位置를 몸의 다른 部分에 대해서 바로 잡는데 특히 중요하다.</p> <p>④ 聽力喪失이 不完全할 때는 漸增現象(Recruitment phenomenon)이 나타나는데 그 病理機轉은 前庭(Vestibular)과 蝸牛殼(Cochlear)의 微細한 有毛細胞의 變性を 招來하는 內淋巴系의 擴張을 들 수 있고 이런변화와 迷路 機能의 發作的障礙와의 關係는 不明이다.</p>
--------------	---

3) 盧寬澤等 說<sup>20)</sup>

眩暈(Vertigo)이란 回轉感, 浮動感, 眼前暗黑感 등이 同伴된 平衡障礙로서 前庭神經, 前庭器官, 前庭核 등의 機能障礙가 原因이 된다.

眩氣(Dizziness)는 症狀이 경한 상태로 上記器官의 경미한 장애가 원인일 수도 있으나 보통은 다른 기관의 장애가 원인이 된다.

回轉性 眩暈은 末梢前庭性 障礙, 浮動性眩暈은 中樞性障害로 感覺하려 했었는데 이는 맞지 않음이 밝혀졌다. 즉 신체의 balance system에 급격한 病變이 발생했을 때는 回轉性眩暈이 되고, 病變이 서서히 진행할 때는 浮動性 眩暈이 나타난다.

4) 金東輝等 說<sup>19)</sup>

眩暈의 病因

(1) 不可易性 病變을 일으키는 것 : 中毒, 炎症,

표 1. 현기증의 感覺

外傷, 腦血管障礙, 腦神經系障礙 등

(2) 可易性 病變을 일으키는 것 : 自律神經系, 內分泌係, 心因性的 이상이나 allergy 등

(3) 末梢前庭性疾患 : Meniere病, 陽性發作性 頭位眩暈症, 前庭神經炎, 등

(4) 中樞前庭性疾患 : 腦腫瘍, 退行性 變性疾患, 椎骨腦底動脈不全, 頭部外傷, 腦梗塞, 髓膜炎 등

5) 김영석<sup>21)</sup>

표 1. 표 2.

症狀	末梢性 障礙 (內耳, 前庭神經과 그 핵)	中樞性 障礙 (전정핵보다 상위의 중추신경)
1) 眩氣症		dizziness
(1) 性質	vertigo	身體 不安定感 等
(2) 程度	回轉感	가볍다
(3) 頭位, 體位와 의 關係	심하다 (+)	(-)
2) 耳鳴, 難聽	(+)	(-)
3) 腦, 腦神經障 碍의 合病	(-)	(+)

표 2. 眩氣症을 수반하는 대표적인 疾患

정형적 현기증(vertigo)	비정형적 현기증(dizziness)
<p>1. 中耳炎에 의한 것</p> <p>① 메니에르병</p> <p>② 藥物中毒(스트로마비, 카나마이, 아스피린, 키니네등)</p> <p>③ 外傷性 內耳障病</p> <p>④ 耳石疾患(양성발작성 頭位 眩氣症 特發性 位置性眩氣症)</p> <p>⑤ 炎症(中耳炎, 迷路梅毒等)</p> <p>⑥ 突發性 難聽</p> <p>⑦ 耳硬化證</p> <p>2. 제8뇌(聽)神經障病에 의한 것</p> <p>① 소뇌교각부 종양, 耳性대상포진(Ramsay Hunt 症候群)</p> <p>② 전정신경염</p> <p>③ 外傷</p> <p>3. 전정핵 및 뇌간의 障病에 의한 것</p> <p>① 추골뇌저동맥 循環不全症</p> <p>② Subclavian steal syndrome</p> <p>③ 추골뇌저동맥계의 閉塞</p> <p>④ 小腦出血</p> <p>⑤ 腦腫瘍(Bruns 증후군) 및 膿瘍</p> <p>⑥ 頭部外傷</p> <p>⑦ 多發性硬化證</p> <p>4. 頸部에 기인한 것</p> <p>① 頸部 變形性脊椎症</p> <p>② Whiplash injury</p> <p>③ 경근 근막이상에 의한 추골동맥 압박</p> <p>④ Barre-Lieou 증후군</p>	<p>1. 循環障病에 의한 것</p> <p>① 腦循環障病(腦硬塞, 頭蓋內出血, 一過性腦虛血, 腦血管不全, 高血壓性腦證)</p> <p>② 高血壓症</p> <p>③ 低血壓症 및 起立性低血壓症, Shy-Drager 症候群</p> <p>④ Adams-Stokes 症候群</p> <p>⑤ 頸動脈 症候群</p> <p>⑥ 大動脈炎 症候群(absence of pulse pulseless disease)</p> <p>2. 貧血을 일으키는 血液疾患</p> <p>3. 中樞神經의 機能的障病(癱疾, 偏頭痛, 外傷)</p> <p>4. 腦의 器質的 疾患(外傷, 腫瘍, 炎症, 變成)</p> <p>5. 頸椎性인 것(變形性 頸椎症, Whiplash injury)</p> <p>6. 眼科的 疾患(안경부적, 안정피로, 외안근마비 등)</p> <p>7.  과환기 症候群</p> <p>8. 心因性 眩氣症(히스테리, 心氣症, 不安神經症, 鬱狀態)</p> <p>9. 自律神經 失調症</p> <p>10. 鼻疾患(부비강염)</p> <p>11. 耳疾患(外耳, 中耳炎, 移管狹窄)</p> <p>12. 月經, 妊娠, 更年期障病, 子宮發育不全</p> <p>13. 中毒(알코올, 니코틴, 수면제 등)</p> <p>14. 低血糖症等 代謝異常, 甲狀腺機能低下, 부갑상선기능저하 등</p> <p>15. 악관절증후군(Costen 증후군)</p> <p>16. 두개의 이상에 의한 것(두개저합입증)</p> <p>17. 加速度病(kinetosis)</p>

### III. 總括 및 考按

《內經》<sup>1)</sup>에서 眩暈은 狗蒙招尤, 目冥, 耳聾 및 胸仆(眩仆) 등의 症狀로 나타나 있으며 病因에 관하여 “諸風掉眩皆屬肝木”이라 하여 眩暈이 肝風

上攻으로 인하여 發生되고 腎의 生髓機能減退로 髓海不足하면 上虛하여 眩暈이 招來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張<sup>2)</sup>은 目眩을 少陽病으로 보면서 頭眩, 眩冒 등이 太陽病 陽明病 및 少陰病 等に 依해서도 發生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巢<sup>3)</sup>는 血氣虛한데 風邪가 侵入하면 風頭眩이



發生된다고 하였고, 劉<sup>4)</sup>는 風火를 病因으로 記하였으며 張<sup>5)</sup>은 風寒濕 및 宿痰이 眩暈을 發生시킨다고 하였다.

朱<sup>6)</sup>는 風寒暑濕 四氣가 虛를 틈타 侵入하거나 痰이 氣虛한데 火와 合하여지면 眩暈이 發生된다고 하여 痰을 그 主因으로 보았다.

朱<sup>7)</sup>는 風寒暑濕 等에 依한 外感, 七情, 內傷, 勞倦 및 吐衄, 崩中, 金瘡과 妄汗吐下 등의 原因을 述하였다. 李<sup>9)</sup>는 內傷 勞役 氣血虛 痰火의 病因을 記하면서 肥白人 및 瘦黑人의 病因을 分別하였다. 龔<sup>10)</sup>은 虛極한데 寒이 侵入하거나 風寒暑濕氣鬱이 生誕하여 眩暈을 發生시킨다고 했으며, 許<sup>13)</sup>는 病因을 虛에는 氣血虛 實에는 痰涎風火로 分別하고 風暈, 熱暈, 痰暈, 虛暈, 濕暈, 氣暈 등의 六種 眩暈으로 區分하였다.

張<sup>12)</sup>은 虛가 眩暈 病因의 十中八九를 占하고 痰火는 十中一二에 不過하다고 述하면서 傷陽中之陽, 傷陰中之陽, 傷氣, 傷陰 및 營衛虛等에 따른 原因을 記하였다. 上<sup>14)</sup> 醫家說을 綜合하여 風火 痰虛等으로 總括하면서 肝陽上擾, 腎精不足, 氣血不足 및 痰濕交阻等을 原因으로 說明하였다.

以上の 內容을 綜合하면 眩暈의 病因에 關한 醫家들의 主張은 《內經》<sup>1)</sup>의 風, 劉<sup>4)</sup>의 風火, 朱<sup>6)</sup>의 痰 및 張<sup>12)</sup>의 虛 등으로 包括 할 수 있는바 그 病理 機轉을 살펴보면 風은 動을 主하니 勢力代謝가 盛하여 風木이 盛하면 金克木을 못한 때문이며 木은 다시 生火하고 風火는 모두 陽으로서 相合하면 旋轉을 招來하고<sup>4)</sup> 內傷勞倦으로 氣虛를 惹起하거나<sup>9)</sup> 汗吐下를 妄施하여 陽虛를 發生시킨 것<sup>2)</sup> 및 吐衄, 便血, 金瘡, 崩中 等에<sup>7)</sup> 依한 出血로 血虛한 것 등은 모두 虛症에 歸屬시킬 수 있으며 外感風寒暑濕 四氣가 鬱하면 涎을 生하고 結하여 飲을 形成하여<sup>3)</sup> 眩暈을 發生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眩暈과 臟腑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諸風掉眩皆屬肝木”<sup>11)</sup>이라 하여 眩暈이 肝과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眩暈의 原因이 髓海不足<sup>1)</sup>이므로 髓海生成의 臟인 腎과도 相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西醫學에서 眩氣症은 回轉感を 主로 하는 眞性眩暈(vertigo)과 非回轉性인 비틀거림, 無力症, 아

절함과 머리가 텅 빈 느낌 및 눈이 침침하고 非現實感, 失神이나 眩氣性 發作이 있는 偽性眩暈으로 分別될 수 있다<sup>18)</sup>.

病變部位의 聽器와의 關聯性에 따라 耳性眩暈과 非耳性眩暈으로 나누어지며 耳性眩暈에는 各種 外耳 및 中耳疾患, 迷路炎, 聽器外傷, 迷路梅毒, 藥物中毒에 의한 眩暈, Meniere氏病에 의한 眩暈 등이 包含되고 非耳性眩暈에는 視性眩暈, 鼻性眩暈, 心因性眩暈, 腦性眩暈, 其他 婦人科的, 內科的, 혹은 外科的 疾患에 수반되는 眩暈이 該當된다<sup>17)</sup>.

末梢性障礙에 의한 眩氣症은 Vertigo에 該當되고 回轉感이 나타나고 症狀이 심하며 頭位 및 體位와 關係가 있으며 耳鳴難聽等을 同伴하고 腦神經障礙症狀가 나타나지 않는다. 中樞性障礙에 의한 眩氣症은 Dizziness에 該當되며 身體不安定感 症狀가 나타나며 症勢가 가볍고 頭位 및 體位와의 關係는 없으며 腦神經障礙症狀를 나타낸다.<sup>21)</sup>

東醫의 眩暈症狀中 旋轉 其動不正而左右行曲<sup>4)</sup>, 身轉<sup>6)</sup>, 掉搖不定<sup>13)</sup> 等은 回轉感を 主로 하는 眩暈(vertigo)에 該當하고 眼花<sup>14)</sup>, 目閉<sup>6)</sup>, 目冥, 狗蒙<sup>1)</sup> 等은 視覺障礙이며, 耳鳴, 耳聾<sup>1)</sup> 等은 聽覺障礙이고 胸仆(眩仆)는 失神이며 頭暈, 昏冒<sup>14)</sup> 等은 어질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眩暈의 病理를 살펴보면 自身이나 周邊事物이 돈다고 錯覺하는 三半規管과 重力에 關係하는 卵形囊 및 球形囊의 感覺機인 平衡石의 機能失調로 運動覺 및 位置覺 異常을 招來한 때문이라는 內容은 東醫에서 運動을 主하고 勢力代謝를 통해 正常 生理를 維持하는 肝機能 系統의 疏泄機能 亢進과 關係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視覺障礙가 眼筋麻痺 및 特別性 眼球震盪症 때문에 動搖視를 느낀 때문이라는 것은 肝의 竅인 目과 肝의 筋인 筋이<sup>13)</sup> 모두 肝機能系로서 機能失調를 야기한 것으로 推測할 수 있고 聽覺障礙가 急性末梢性 前庭症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主로 前庭과 蝸牛殼의 微細한 有毛細胞의 變性を 招來하는 內淋巴系의 擴張때문이라는 內容은<sup>18)</sup> 腎의 竅인 內耳가 精脫<sup>1)</sup> 및 貯藏機能衰退로 異常을 招來하는 것으로 思慮되며 汗出, 惡心, 嘔吐가 自律神經失調와 相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점은 東醫의 生體協關系인 三焦

에 氣化機能障礙<sup>1)</sup>와 關聯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眩暈의 種類에 關하여 살펴보면 東醫에서는 許는 風暈, 濕暈, 熱暈, 氣暈, 痰暈, 虛暈 등의 6種으로 구분하여 病因에 따른 分類를 하였다. 한편 西醫에서 眩氣症은 症候에 따라서 眩暈 眩氣 등으로 分別하고 眩暈의 發生部位에 따라 聽神經性 眩暈, 迷路性 眩暈, 頸髓性 眩暈, 腦幹性 眩暈 등으로<sup>18)</sup> 區分되기도 한다.

#### IV. 結 論

眩暈에 關한 韓醫學 및 洋醫學의 文獻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東醫의 眩暈은 西醫의 眩氣症에 該當하며 眩氣症은 眞性眩暈과 僞性眩暈으로 分別될 수 있다.
2. 眩暈의 病因에 關하여 東醫에서는 風, 火, 痰, 虛 등으로 包括할 수 있는 反面 西醫에서는 末梢性 迷路疾患, 中樞性 前庭疾患, 呼吸循環障礙 및 精神疾患 등으로 言及하였다.
3. 眩暈이 東醫에서는 藏象의 臟象으로 肝腎과 相關되고, 西醫에서는 解剖學的으로 內耳, 呼吸循環系, 腦部 등과 關聯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4. 眩暈의 病理에 關하여 東醫學的으로는 肝機能系의 疏泄機能亢進, 腎機能系의 貯藏機能衰退 및 三焦의 氣化機能 失調와 相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西醫學的으로는 平衡感覺器異常, 眼筋麻痺 및 特別性眼球振湯, 內耳有毛細胞變性과 自律神經失調 등에 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眩暈의 種類에 對하여 東醫에서는 病因에 따른 分類를 한 反面, 西醫에서는 症候 및 發生部位에 따라 區分하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 參 考 文 獻

1. 張隱庵, 馬元台編註: 黃帝內經,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1977, 素問 p92, p132, p146, p178, p314, p499, p523, p524, p601, p628, p632 靈樞 p130,

- p236, p243, p247, p325
2. 蔡仁植: 傷寒論, 서울, 高文社, 1980, p63. p73. p134. p150. p192. p209
3. 巢元方: 諸病源候論, 臺北, 昭人出版社, 1964, p9
4. 劉完素: 劉河間傷寒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257
5. 張從正: 儒門事親,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p277-278
6. 朱震亨: 丹溪心法, 臺北, 中國書店出版社, 1986, p277, p278
7. 朱 橐: 普濟方, 上海, 人民衛生出版社, 1982, p828
8.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2-61
9. 李 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78, p357
10.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5, p219-221
11. 王肯堂: 六科准繩, 서울, 東明社, 1976, pp201-205
12. 張介賓: 景岳全書, 臺北,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218-221
13.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76, pp202-203, p139, p147
14. 上海中醫學院: 中醫內科學, 香港 商務印書館, 1975, pp157-159
15. 楊思澍: 中醫臨床大全, 臺北,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87-193
16. 林金七: 東洋醫學叢書, 서울, 一中社, 1990, pp204-207
17. 白萬基: 新耳鼻咽喉科學, 서울, 1969, pp75-76
18. 이문호: 내과학, 서울, 박애출판사, 1976, p177, pp1812-1814
19. 김동휘: 最新診斷과 治療, 서울, 藥業新聞社, 1990, pp449-452
20. 醫學教育研修院: 家庭醫學,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8, pp98-100
21. 김영석: 臨床中風學, 서울, 서원당, 1997, pp155-160

22. 陸夢雷等 編: 古今圖書集成 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1959, pp727-728

23. 薛仁燦: 眩暈에 對한 文獻的考察, 大田大學校 內科學教室, 1996,